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박재희
석천학당 원장

이 엄동설한에 그 고양이는 어디에서 긴 밤을 떨며 견디고 있을까? 문득 아침마다 밥 먹으러 오는 길고양이 걱정이 든다. 어느 날 학당 앞에서 배고픈 표정으로 웅크리고 앉아 있어, 먹이를 사서 몇 번 주었을 뿐인데, 이 추위에 얼어 죽지는 않았을까 괜한 걱정이 드는 것은 무슨 마음일까? 나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그 고양이가 오늘 밤을 무사히 견뎌내고 아침에 먹이를 먹으러 와 주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은 무엇일까?

공자는 그것을 사랑(愛)이라고 말한다. "사랑하면 그가 살기를 바란다"(愛之欲其生) '논어'의 짝막한 이 구절은 인생을 살면서 자주 가슴 떨리게 하는 구절이다. 사랑은 아끼는 마음이다. 아끼는 대상은 잘 살아있기를 바란다. 내가 타고 다니는 차가 상처 없이 잘 보존되기를 바라는 마음 역시 그 차를 아끼기 때문이다. 내 자식, 부모형제가 잘 살기를 바라는 마음 역시 아끼는 마음에서 나온다. 그런데 고양이는 나와 아무런 인과관

측은지심(惻隱之心)

계가 없다. 내가 키우는 고양이라도 아니고, 그렇다고 나에게 다가와 꼬리를 흔들어도 대지도 않는다. 그런데도 나는 지금 그 고양이가 이 추운 겨울을 잘 보내고 살아있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다.

나와 인과 관계가 없던, 인간이라면 타자의 불행에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고, 타자의 불행에 대하여 차마 참지 못하는 본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 유교의 마음 이론이다. 안 보이는 타자의 아픔에 대한 공감이 측은지심(惻隱之心)이고, 보이는 타자의 불행에 대한 슬픔이 불인지심(不忍之心)이다. '오늘 밤, 장터의 거지들은 쉼을 얻을까. 소금창고 옆 문둥이는 얼어 죽지 않을까. 뒷산에 노루 토끼들은 굶어 죽지 않을까. 아! 나는 지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 낭송을 들으며 잠이 들곤 했었네...' 박노해 시인의 이 시를 읽으면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측은지심과 불인지심이 느껴진다. 측은(惻隱)은 내가 모르는 이(隱)에 대한 슬픔(側)이다. 불인(不忍)은 내 눈앞에 벌어지는 불행을 참지(忍) 못할(不)이다. 나와 관련 없는 존재의 아픔을 공감하고, 내 눈앞에 불행을 차마 두고 보지 못하는 마음이 있어 인간은 여전히 아름다운 존재다. 낮에 본 장터의 거지들의 안녕을 걱정하고, 나와 전혀 관련 없는 뒷산에 노루와 토끼의 생사를 염려하는 할머니의 그 마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그 할머니의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는 뉴스가 하나 들려왔다. 워싱턴 D.C에서 출발하여 나이아가라 폭포로

가던 한국 여행객들이 벼벌로 시 부근에서 폭설을 만나 타고 가던 밴이 눈 속에 고립되었다. 눈 치우는 삽을 빌리러 간 집에서 40대 부부가 한국 여행객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여 음식을 나누고 함께 지냈다고 한다. 그 부부는 일면식 없는 이방인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들의 음식을 나누고, 안식처를 내주었다. 내 집 앞에서 눈에 고립되어 추위와 배고픔에 지친 사람들을 차마 두고 보지 못하는 불인지심과, 그들의 고통을 측은하게 여기는 측은지심을 발휘한 것이다. 나의 선행이 널리 알려져 명예를 얻고자 함도 아니고, 그들의 고통을 외면하여도 훗날의 비판을 면하고자 함도 아니었다. 그저 곤경에 처한 사람들이 잘 살아 주기를 바라는 할머니의 마음을 그대로 실천한 것뿐이었다.

몸이 불편하여 대중교통을 편하게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좁지에 사랑하는 가족을 사고로 잃고 힘들어하는 가족들, 안전을 위하여 좀 더 나은 노동 조건을 요구하는 노동자들, 가족과 미래를 위하여 지역만리 한국 땅에서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들, 그들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들이 잘 살기를 바라는 할머니의 마음이 절실한 시대다. 어린 시절 우리의 배를 토닥이며 들려주시던 측은과 불인의 마음 저장가, 그 저장가 소리가 다시 우리 사회에 은은하게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한 해가 저물고 새해가 오면, 그 전설이 현실이 되고, 그 저장가가 애창가가 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종교칼럼

위미향



중현
광주 정심사 주지

위미향은 작은 어촌 마을이다. 제주 서귀포에서 쇠소깍을 지나 동쪽으로 10여 분 정도 더 가면 나타난다. 처음 가면 양쪽으로 길게 뻗은 이국적인 가로수가 사람들을 반긴다. 마을을 가로지르는 왕복 2차선의 텅빈 도로로는 언제 봐도 아름답고, 거리는 한산하다. 그러나 마을엔 생기가 흐른다. 젊은 여성이 독립 책방을 하고, 저녁 6시에 문을 여는 퓨전 일식 식당 겸 주점엔 젊은 사람들이 찾아온다. 건물들은 낡았어도 대부분 깔끔하다. 사람들이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이다. 작은 포쿠니가 오로지 어업만으로 마을을 이렇듯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상당 부분 육지에서 찾아오는 나 같은 여행객들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라 짐작된다. 관광지는 아니지만, 마을엔 여행객을 위한 숙박시설, 식당, 카페, 편의점 같은 시설들이 구축구속되어 있다.

20대 초반 무렵, 동아리에서 지리산으로 MT를 간 적 있었다. 남원역에서 내린 우리 일행은 구경 삼아 광한루까지 걸어갔는데, 불과 10여 분만에 도착했다. 도착해서 보니 광한루가 남원의 끝자락이었다. 대도시에 태어나 자랐던 내게, 남원 같은 소도시는 매우 신선

한 경험이었다. 기억의 정확성 여부는 차치하고서라도, 그 기억은 내게 지방 소도시에 대한 막연한 동경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되었다.

청년 시절의 동경 때문일까, 처음 가본 위미향은 내 마음을 적잖이 설레게 하고, 심지어 놀러 앉아 살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충동의 이면에는 지난 20여 년 넘게 산속에서만 산 피로감도 한 몫하고 있다. 그러나 나의 이런 설렘이 단순히 이런 이유 때문만은 아니다. 이 나라의 일반적인 읍 소재지는 위미향처럼 그렇게 활력이 넘쳐 흐르지 않는다. 물론 균형이 있는 읍 소재지는 나름 약간의 활기가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읍 소재지에서 생기를 찾아보기는 매우 힘들다.

전형적인 읍 소재지의 모습은 대중 이렇다. 눈에 띄는 사람들은 노인네들이다. 건물들도 사는 사람들을 닮아, 낡고 손보지 않은 티가 많이 난다. 길가엔 이빨 빠진 것처럼 문을 닫은 가게들이 듬성듬성 있다. 주변엔 눈과 발이 펼쳐져 있는데, 폐비닐 같은 농업용 폐기를, 낡은 비닐하우스, 폐가들을 심심찮게 볼 수 있다. 그나마 도회지의 사람들이 드라이브 삼아 다녀올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마을들은 나은 편이다. 도회지 사람들이 도시의 갑갑함을 풀 수 있는 곳으로 소비되기 때문이다.

갈수록 이 나라는 도시 국가로 변하고 있다. 사람들은 도시로 몰려들고 있다. 덩달아 모든 자원 역시 도시로 집중되고 있다. 심지어 이런 집중화 현상은 도시들 간에도 매우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어 모든 자원들은 갈수록 수도권으로 집중되고 있다. 수도권 자체가 하나

의 도시 공화국으로 이미 변해왔다. 명실상부한 제2의 도시였던 부산이 줄지어 그 자리를 인천에게 뺏겼지만 그 사실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상황이 이러하니 소도시는 고사하고 고작 읍 소재지는 말해 무엇할까.

차라리 청년 시절의 막연한 동경, 산중 생활의 피로감이었다면 다행이다. 안타깝게도 위미향을 향한 나의 설렘은 도시 국가 아닌, 서울 공화국으로 변해버린 이 사회에 대한 염증, 그리고 몰락하고 있는 시골에 대한 안타까움 때문이다.

그런 그렇다 치고 여기 그냥 놀러왔고 싶다는 나의 생각은 과연 실현 가능할까? 잠시와서 돈을 뿌리고 가는 여행객이야 상관없겠지만 아예 놀러왔었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시골 특유의 폐쇄성을 감수해야 한다. 오히려 정갈하게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폐쇄성은 반드시 감수해야 한다. 폐쇄성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 그저 길도는 이방인에 불과하다. 설령 기존의 구성원들이 받아준다 해도 폐쇄성은 여전히 견재하다. 폐쇄성은 두개의 얼굴을 하고 있다. 이방인을 향한 폐쇄성이 일종의 방패라면, 일원이 된 이후의 폐쇄성은 사람을 옥죄는 족쇄와도 같은 것이다.

점점 죽어가는 육지의 시골 마을들은 스산한 기운마저 풍긴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이유 때문에 폐쇄성도 함께 사라지고 있다. 이유가 뭐가 되었건 폐쇄성이 사라지는 건 좋은 일이다. 바닥을 치게 되면 뭐가 되었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쇠락한 시골에서 오히려 희망을 찾는다. 비록 낡은 부대라도 잘만 손보면 세월을 머금은 새 술을 담글 수 있다.

기고

월드컵 4강에 다시 오르려면



황주홍
전 국회의원·건국대 교수

이번 월드컵에서 우리는 희망을 보았고, 절망의 높이도 확인하였다. 4년 뒤에는 2002년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까. 누구도 예단할 수 없는 불확실의 영역이지만, 그 결과가 우리에게 달려 있다는 사실만큼은 확실하다. 현재 28위인 한국 축구 랭킹이 10위권으로 진입해야 될 도모해 볼 수 있을텐데, 이를 위해 뭘 해야 할까.

한국인 감독을 선임하고, 히딩크와 벤투 때처럼 그에게 전권을 부여하고 4년 임기를 보장해 주는 일이 급선무다. 한국말을 모르고 한국 축구를 모르는 유럽 감독에 의한 기술적 '대입' (代入) 방식의 한계가 없지 않았다. 나는 없고 우리만 있다'는 축구에서 한국 에토스를 결여한 외국인 감독이 '팀 스피리트'를 완전체로 끌어올리는 건 쉬운 일일 수 없다. 일본을 포함해서 16강에 오른 나라들 중 외국인 감독을 쓴 나라는 한국밖에

없었다. 이번에 출전한 아프리카 5개국도 모두 자국 감독들이었다.

완벽에 이르는 유일 경로는 언제 어디서나 '연습로(路)'이다. 한국 축구는 체계적 훈련과 연습이 정말 많이 필요하다. '유럽의 펠레'로 불리던 프랑스의 득점왕 미셸 플라티니는 1.6게임당 1골씩 넣어 대던 자신의 비결 세 가지를 털어 놓았다. 연습, 연습, 또 연습이라는 거였다. 어릴 때부터 공을 가지고 살다시피하니 랭킹 1위 브라질이고, 월드컵 우승국 아르헨티나인 것이다. 오늘의 손흥민을 있게 한 것도 아버지가 아니라 연습이었다.

한국 축구의 '밥'이던 일본이 어느덧 우리의 롤 모델이 되었다. 오직 양국 협회의 차이 때문이다. 우리 축구 협회도 좀 변하고 멀리 내다볼 줄 알았으면 좋겠다. 일본은 J리그 출범(1993년)과 함께 무려 '100년 구상'을 내놓았다. '일본의 길' (2005년)을 밝히면서는 2050년 월드컵 우승이라는 목표까지 제시했다. 선수와 감독만 축구를 하는 것 같지만, 협회도 축구를 하고 축구 그 이상을 해야 한다.

협회는 K리그에 관공이 가득차게 해야 한다. 야구가 하는데 축구라고 못 할 게 없고, J리그는 하는데 K리그가 못 할 바 없다. '축구 붐' 없는 축구 강국은 망상일 뿐이다.

협회의 지부로 유럽 대표부를 세우되, 지금의 신문로 협회 규모로 통 크게 했으면 좋겠다. 박지성 같은 스타를 유럽 대표부 책임자로 영입해서, 초중고에 비롯한 각급 선수들의 해외 진출, 전지훈련, 유럽 내 A매치 유치 등을 전담하게 하는 것이다.

파주 트레이닝센터 같은 대표팀 훈련장을 런던 교외에 조성해서 '탈아' (脫亞)하는 것 또한 절실하다. 유럽 축구를 잡으려면 유럽으로 가야 한다. 국가대표, 올림픽대표, U-20·18·15 대표를 담급질하는 홈 캠프를 마련하는 것이다. 한국 축구의 내일은 파주보다 런던 훈련장을 더 자주 활용할 때 시작될 것이다.

최근 ESPN은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 일본이 A급, 한국은 B급 성적을 낼 것으로 예상했다. 유럽 진출 선수가 한국은 현재 8명인 반면, 일본은 19명이다. 일본에는 고교 팀이 4000개인데, 한국은 200개에 불과하다. 그 일본이 한번도 못한 4강을 다시 하려면 유예 언급한 '조건들'에 지금 착수해야 한다. 이 조건들이 출발점이자 끝점이다.

다음 월드컵 때까지 우리 엔트리 26명이 다 유럽 진출 선수들이면 8강이고, 선발 11명 전원이 손흥민·이강인 클래스이면 4강 신화를 또 작성하는 거다. 기적이 아닌 실력으로 말이다. 우연한 4강 같은 건 믿을 게 못 되니까.

社說

광주공항 국내선 무안 통합 논의 다시 시작해야

광주 군 공항 이전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무안국제공항을 명실상부한 서남권 거점공항으로 발돋움시키기 위해서는 지역 내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광주·전남이 군 공항 이전을 연결 고리로 광주공항 국내선을 무안공항으로 이전·통합하는 방안을 재논의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한 숙원 사업이었던 활주로 연장과 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등이 2025년 완공을 목표로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다. 특히 활주로 연장 공사가 완료되면 중대형 항공기 취항으로 해외 중장거리 노선이 다각화되면서 지역민 수요는 물론 인근 타 지역의 항공 수요까지 유인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무안공항을 경유하는 호남고속철도 2단계 건설 공사가 같은 해 마무리될 경우 접근성도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 같은 장밋빛 청사진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광주공항 국내선과 무안국

제공항의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민선 7기 당시 이용섭 광주시장은 2021년까지 광주공항 국내선 이전을 약속했지만 군공항 이전 문제를 둘러싼 불협화음으로 성사되지 못했다.

주지하다시피 광주공항과 무안공항의 통합은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고속철도와 항공을 연계하는 상품으로 경쟁력만 갖춘다면 충청권·영남권의 여행객까지 300만 명을 끌어올릴 수 있다.

고무적인 사실은 민선 8기 들어 양시도가 군 공항 이전에 대한 국가적인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하자는 데 뜻을 모은 데 이어 최근 합평에서 군 공항 이전 설명회가 처음으로 열리는 등 분위기가 변하고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도 및 지역민 간 공감대 형성과 상생 노력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공항 통합 논의 를 다시 시작하고, 중앙 정부를 움직여 군공항 이전 또한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화재 빈발 에너지저장장치 안전 대책 시급하다

신재생 에너지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에너지 저장 장치(Energy Storage System·이하 ESS)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정부는 시공간에 전력을 생산하기 어려운 태양광·풍력 에너지를 미리 저장했다가 필요한 시간대에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는 핵심 설비다. 한때 최근 전남에서 ESS 화재가 잇따라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27일 오후 4시 40분께 영암군 금정면 한 태양광발전소의 ESS 보관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는 이들이 지나도록 안전히 꺼지지 않았다. 소방당국은 ESS 특성상 물을 사용하면 화학 반응을 일으키며 폭발 위험이 커지는 탓에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앞서 지난 8일 담양군 무성면의 태양광발전소 ESS에서 화재가 발생해 리튬이온 배터리 1200여 개가 불에 타면서 18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이처럼 ESS 화재가 잇따르는 것은 신재생 에너지 열풍으로 관련 설비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 지역 ESS 설치

사업장은 2019년 334개에서 지난해 514개로 2년 새 55%나 늘었다. 또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 32건의 ESS 화재가운데 다섯 건이 영암·해남·완도 등 호남 지역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다수의 배터리로 구성된 ESS 설비는 화재 시 진압이 쉽지 않고 대응 매뉴얼조차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난 5월 배터리 충전율 제한과 안전 관리자의 월 1회 이상 의무 점검을 골자로 한 'ESS 안전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배터리 공정 개선이나 안전 점검을 제조사가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만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현재로서 ESS 설비에 불이 나면 사실상 저절로 꺼질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배터리의 위험도를 낮추고 안전성을 확보하는 기술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방화벽 등 화재 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효율적인 진화를 위한 매뉴얼 마련도 서둘러야 할 것이다.

無等鼓

"글쓰기는 인간의 영역이고 편집은 신의 영역이다" 베스트셀러 작가 스티븐 킹이 '유혹하는 글쓰기'에서 한 말이다. 출판물에서 '편집'의 역할은 절대적이라는 의미다. 책 제목이 판매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예는 많다. 미국 역사상 최고의 소설 중 하나로 꼽히는 '위대한 개츠비'는 처음 '웨스트에그의 트리팔키오'라는 제목으로 출간했는데, 판매가 부진하자 제목을 바꿔 다시 내놓아 베스트셀러가 됐다. 국내에서 인기가 많았던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역시 "칭찬의 힘"으로는 주목을 못 받다가 제목을 바꾼 이후 크게 화제가 됐다.

책과 마찬가지로 신문에도 제목의 역할은 중요하다. 아침에 배달된 신문의 기사 전체를 읽는 사람은 매우 드물다. 한 조사에 의하면 독자의 절반 이상이 제목만 읽거나 제목에 이끌려 기사를 읽는다고 한다. 독자는 개인적 흥미나 관심사에 따라 뉴스를 선택하는데, 이때 기사의 선택은 제목의 주목도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이다. 제목이 읽히지 않으면 결국 그 기사는 독자의 눈에서 멀어진다. 특히 인터넷이

나 모바일로 신문을 보는 시대에 제목의 역할은 절대적이라 할 수 있다.

한국편집기자협회에서 선정한 2022년 최고의 편집은 '악몽은 병판의 일각이었다'는 제목의 기사였다.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러시아 선수단의 악몽 파동을 꼬집은 것으로, '병산의 일각'에서 '병산'을 '병판'으로 살짝 비틀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그때 광주일보도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에서 1위를 한 뒤 도핑에 적발된 발리예바 선수가 눈물을 흘리는 사진과 함께 '눈물? 악몽!'이라는 제목을 썼다.

편집, 희망 찾기

제목 쓰기는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라 할 수 있다. 버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버리고 마지막 고갱이를 찾는 작업이다. 또한 단순한 기사의 압축이 아니라 기사를 해석하고 변주하고 창조하는 일이기도 하다. 오늘은 올해의 마지막 신문을 편집하는 날이다. '칼날 위의 민주' '雨·雨·하늘만 쳐다보는 광주시' '유전결혼 무전비혼' 등 지난 1년간 썼던 제목들을 돌아보면 우울한 내용이 많다. 내년에는 좀 더 희망찬 제목으로 편집을 하고 싶다.

/유재만 편집담당국장 jkyou@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程厚植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 (지사·지국 (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내선 (대표 FAX 222-4918)	경 영 시 원 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 치 부 220-0652	예 향 부 220-069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경 제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업 무 국 220-0551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21	(FAX 220-0195) (FAX 222-0195)	
전 남 본 부 220-0680		다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